

“빅뱅 창조이야기”

창세기 1 장 - 11 장

2015 년 10 월 4 일

오늘이 31 주간에 걸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 캠페인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 The Story” 제 1 과를 읽으셨습니까? 지난 주에 돌려드린 퀴즈를 재미있게 풀어보셨습니까? 읽지 못하시고 풀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시기 전에, 제 2 과를 읽고 오시면 됩니다. 또 매 주, 네차례에 걸쳐 소그룹 공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수요일 아침, 그리고 목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서로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숙하고 성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담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혼자 있으니 참 외롭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천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나무들, 동물들 만드셨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반려자입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할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그런데, 네 한쪽 팔하고 네 한쪽 다리를 사용해야 되겠다. 아담이잠시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갈비뼈 하나로는 안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10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10-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걱정만 할 아담을 위해서. 9. 언제가 리모트콘을 찾아 건네줄 사람이 필요한 아담을 위해서. 8. 새 무화과 잎을 만들어진 옷을 사 줄 사람이 아담에게 필요해서. 7- 의사와 약속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아담을 위해서. 6 어느 날, 쓰레기를 내어 놓아야 하는 지를 모르는 아담을 위해서 5. 아기 낳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아담을 위해서 4. 동산지기로 있으면서 어디에다 장비들을 놓았는지 모르는 아담을 위해서 3. 잘못했을 때 핑계될 사람이 필요한 아담을 위하여. 2.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바라보시다 머리를 끄적거리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말씀하시기를, “맘에 안들어. 이보다 더 잘 난 인간을 만들어야 겠다.”

창조이야기 읽다보며는, 액션 영화 한편을 보는 기분을 갖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영화 첫 장면을 놓치며는 영화의 줄거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도, 첫 창조 이야기를 놓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전개됩니다. 진화론의 빅뱅 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빠른 속도로, 빅뱅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 장 1 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하셨나?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 장 1 절 말씀은 다르게 쓴다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관계를 창조하셨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리가 갑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관계를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는

The Story Preaching 1

아무 목적 없이, 질서 없이 일어난 빅뱅 현상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전개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날 넷째날, 다섯째날, 창조 이야기는 시적으로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날에는 빛과 어둠이 창조되어 나누어지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이 나누어지고, 셋째 날에는 육지가 생기고 넷째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이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매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참 보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It was very good.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고 싶은 생명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난 주에, 유럽에 다녀온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믿음 속원들과 오늘 예배 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였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프스였습니다. 만년설이 덮힌 높은 산 봉우리들.. 그리고 고봉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 앞에서 저는 입을 벌리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굉장하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 이야기에서는, 그 산보다 더 굉장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세기 1 장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괜찮은 존재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며는, 창조 이야기 다음에 타락이야기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경과 인정함이 동행합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인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배반을 하였지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담과 이브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져 버렸습니다.

The Story Preaching 1

앞으로 계속 함께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포기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줄기차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후에, 우리 인간의 삶에 죄가 찾아왔고 죄로 인하여 깨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는 꿈과 다른 꿈을 선택하였기에, 죄는 우리의 삶에 한 부분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형제간에 이웃간의 관계고 깨집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심, 이기심, 질투, 욕심 그래서 싸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참 사랑과 평화가 없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물로 인간세상을 대 청소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창세기 9 장 20 절 이후에 보며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남아 있었지만,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리고 끈질기신, 사랑이 지극하신 구원 사역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들을 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무화과 잎사귀 옷대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인간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인 줄을 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매일, 매순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